

내달 전북 개최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전북도는 2018년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 개최한 경험과 노하우로 오는 5월, 2019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을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17개 시·도 선수단 임원 등 총 2만 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13회 장애학생체전은 '함께 뛰는 땀방울, 자신감의 꽃망울' 제48회 전국소년체전은 '비상하라 천년전북, 하나되라 대한민국' 구호아래 총 8일간의 대축제가 펼쳐진다.



미래 스포츠 꿈나무들의 열전 성공 기원



문화·참여·경제·안전·희망 목표 채택 체전 성공개최 봄 조성 위한 기념행사 추진 새천년 재도약 전북 중심으로 개최식 연출 체전 경기장 14개 시군 최소 1개 이상 배정 경기장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자본 운영 양대체전 참가 선수·임원단 수송책 마련

▲5대 목표 15개 실행과제를 통한 양대체전 성공개최, 전북의 미래가치 제고
올해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은 문화, 참여, 경제, 안전, 희망체전이라는 5대 목표와 체험여행, 자발적 참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 시설물 안전, 학교체육 활성화 등 15개 실행과제를 채택해 양대체전의 성공개최와 전북의 미래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체전준비 추진체계 구축 완료
도는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대회준비를 위한 최고 기구로 주요 정책사항을 자문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체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17년부터 구성·운영한 대회조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조직위는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도차원의 최대 협력·지원을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정계, 언론계, 경제금융계, 체육계 등 각계각층의 대표로, 위원장은 도지사(담연직), 고문 10명, 부위원장 3명, 위원 98명 등 총 121명 규모로 구성하고, 또한 실질적인 대회준비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조직위원회 산하로 도, 도교육청,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도경찰청, 시·군 등으로 집행위원회 1실 15부 43팀을 운영한다.

▲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상황 현장보고회 개최
지난 2월 도 분청 협업부서, 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익산시를 중심으로 도교육청, 도경찰청, 시·군, 집행부서(1실 15부 43팀)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부지사 주재로 양대체전 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도 체전준비단은 29일 근무처를 익산 종합운동장 종합상황실로 30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현장에서 체전관련 모든 협업부서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장애학생체전 개최식 의전, 경기장안내소, 질서유지, 환경·영점, 자원봉사관련 협업과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전 성공개최를 봄조성을 위한 성공기원 기념행사 개최 등 추진
지난 17일에는 체전에 대한 봄조성과 체전홍보 극대화를 위해 행사의 꽃인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함께 했으며, 이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 체육회, 학생 등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해 성공체전을 기원하는 '도민화합축제'로 개최됐다. 자원봉사자, 요식업·숙박업체 종사자, 소방 및 체육회 종사자들의 성공기원을 위한 인터뷰 상영과 양 체육회와 자원봉사자 대표의 결의문 낭독, 체전성공기원을 위한 수권열기 퍼포먼스와 대형 불꽃 퍼포먼스 등을 진행해 참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화합과 단결을 보여주었다.

▲새천년으로 재도약하는 전북을 중심으로 한 개최식 준비
전년도 전국(장애학생)체전은 전라북도 천년의 스토리 중심으로 개최행사를 연출해 관람객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아 명실공히 역대 최대의 성공체전이라는 명예를 안았던 기억으로 오는 5월 14일 장애학생체전 개최식은 새천년으로 재도약하는 전북도를 중심으로 연출할 계획이다. 개최식 연출은 harmony(어울림의 장), Moving(감동의 장), Again(체전 감동 again, 전북관광 again) 3가지 연출포인트를 선정하여 전북에서 펼쳐지는 화합과 공

존의 장을 마련할 것이며, 행사장 구성은 퍼포먼스 효과를 극대화한 중앙무대 슬라이딩 LED 설치, 부채꼴 모양의 1층 관람석, 캠퍼리홍보관 구성으로 가장 작은 체육관에서 역대 체전중 가장 스펙터클한 개최식을 연출한 것이다. 역대 대회와 차별하기 위해 새 천년의 미래로 도약하는 전북 연출을 위한 대회기 개양 퍼포먼스, 관람객 만족도 극대화하기 위한 선호도 조사를 통한 초대가수 섭외(k-타이거즈, 청하, 비와이), 전북의 문화예술은 담은 다양한 부대문화행사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경기장 배정 및 공·승인 추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의 성공 개최와 도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소년체전 경기장은 36개 종목 49경기장(장애학생체전 16개 종목 16경기장)을 14개 전 시·군에 각 지역의 특화종목과 안배를 고려하여 최소 1개 이상의 경기장을 배정했다.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제체전 될 수 있도록 2018년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배정했으며, 신규배정 된 배구 및 핸드볼 경기장에 대해 조망시설 등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한 개·보수를 추진했다. 또한 장애학생체육대회 경기장은 장애인의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경기장을 배정하여 장애학생선수단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다. 특히, 전북도는 대한체육회의 경기장 공·승인에 대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2개 종목 65개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중앙경기단체와 전북도체육회 및 시·군과 합동으로 사전점검(3.5~3.15)을 실시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설보안 대책 등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종목별 경기장에 대한 공·승인을 철저히 대비하여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의 모든 경기장에 대한 공·승인을 완료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본격적 집중 홍보

도는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의 봄업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1단계는 체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홈페이지 오픈과 SNS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2단계 체전홍보확산을 위해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전국에 배포 및 보내 및 서울 주요관광관을 이용한 홍보에 중점을 두었다. 3단계 집중홍보기간에는 주요 방송, 라디오, 언론홍보와 시인성이 높은 터미널내 홍보시설과 고속도로 야간간판을 활용하여 홍보중이며,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시 전북에 개최하는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앞으로 대회기간 동안 전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체전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특히, 양대체전기간 동안 도내 유명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 및 체험코스를 선정·운영하고 전북투어패스 배부, 해설사 배치 등 특별이벤트행사를 실시해 시도 선수단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또한 전북도에서는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경기

장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준비를 하고 있다. 경기기록, 종합순위, 메달집계, 주요경기 생중계 등 모든 경기정보 정보통신인프라를 이용해 처리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시설이다. 주경기장, 종목별 경기장 등 128개소에 정보통신회선 및 전산 사무기기를 설치해 신속·정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종합운동장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무선 AP(와이파이 접속장치)를 설치해 선수단과 경기장 관람객의 편의를 지원한다. 또한 개·폐회식 휴대전화 이용 폭주에 대비, 이동통신3사에 협조를 요청해 이동기지국 중계차량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의 꽃, 자원봉사자 운영
양대체전의 꽃인 자원봉사자 운영은 전북의 자긍심 고취와 홍보를 위해 역량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지난 3월에 총 1,200명 모집(전국소년체전 730명, 장애학생체전 470명)에 종합안내소, 도풍, 개회식 등 7개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는 익산시를 비롯한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61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센터별로 4월까지 기본교육 및 분야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역량과 현장 대처능력을 배양할 예정이다. 장애학생체전에는 장애인선수 1:1 맞춤형 지원,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휴먼 인프라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회기간 동안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심비와 유니폼 지급, 자원봉사 참여 인증서 발급으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켜 성공체전을 위한 기반마련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체전분위기 고취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17일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공기념행사와 함께 발대식을 열었으며, 6월 해단식을 끝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대체전 참가 선수·임원단 수송대책

도는 양대체전기간 동안 17개 시·도에서 2만여명의 선수와 임원인 대외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해 전세버스, 택시 등 총 1,000여대의 차량을 지원하고 대회기간중 주경기장인 익산시에 수송상황실을 운영해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차량운행기간을 대회 전 1일과 대회 종료 후 1일까지 운행해 선수단 및 임원인 대외를 마친 후 돌아오는 날까지 수송을 지원하고, 수송을 책임지는 차량운전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수송차량에는 깃발과 표찰을 제작해 참가 선수단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숙박 및 의료대책

또한, 도는 원활한 체전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와 응급환자 처치 등을 위해 응급구급세트 구입과 전문 의료인 및 구급차 배치등으로 65개 경기장에 소방, 시군 보건소, 도의사회와 의료지원반을 운영, 주경기장에는 임시약국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북대학병원, 원광대학병원 등 14개시군 22개소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